



기아의 전기차 'EV6'.



메르세데스-벤츠의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 350'.

# 국내 전기차 누적 대수 30만대 돌파

### 1년 새 12만5000대 이상 판매 광주 등록 1년 전보다 65% 늘어 20만대 6개월만에 30만대 넘어

전용 플랫폼을 갖춘 신형 전기차가 잇따라 출시되고, 친환경차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까지 확대되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누적 대수가 30만대를 넘어섰으며, 광주 역시 전기차 등록대수가 1년 전보다 65%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29만8633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17만3147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12만 5000대 이상 판매된 것이다.

매달 1만대의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점에서는 이미 30만대를 훌쩍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최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2년 860대에 그쳤던 보급 대수

는 2018년에 5만5756대로 누적 5만대를 넘었고, 2020년 13만4952대로 10만대를 돌파했다.

이러 지난해 말 23만1443대로 20만대 선을 넘은 뒤 6개월여 만에 30만대도 돌파했다. 올해 말 누적 보급 대수는 30만 중후반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6만8528대로 작년 동기(3만9495대)보다 73.5% 증가했다.

올 상반기 판매량을 완성차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가 3만167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684대)보다 101.9% 늘었다. 기아(2만3천192대)도 작년 동기(8천863대) 대비 161.7% 증가했다.

수입 전기차도 올해 상반기 1만2959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1만1431대)보다 13% 늘었다. 메르세데스-벤츠(1395대)와 BMW(1238대)의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1배, 16.3배 늘면서 선전했다.

이처럼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 시 주요 고민 사항이었던 충전 인프라도 갖춰지고 있다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대차가 아이오닉5, 제네시스는 GV60, 기아는 EV6 등 잇달아 전용 전기차 신모형을 출시한 것도 전기차 확대에 주요했다. 벤츠도 '더

뉴 EQB'와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S 53 4매틱(MATIC)+' 등을 비롯해 순수 전기차 신모형을 국내에 잇달아 선보이는 등 수입차도 전기차 신모형을 앞다퉈 출시한 효과로 풀이된다.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으로 1%를 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등록 대수 대비 전기차 비중은 1.2%로 1년 전(0.7%)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광주지역에서도 전기차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이날 광주시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총 자동차등록대수(70만6600대) 중 0.96%(6766대)가 전기차였다. 이는 1년 전(4081대)보다 65.80% 증가한 것으로, 2년 전인 2020년 6월(2844대)에 비해서는 137.90%나 급증한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업체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동화에 나서면서 전기차 신모형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고 충전 인프라도 점점 확충되고 있다"며 "전기차 구매에 최대 고려 요건이었던 충전 인프라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이 개선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자동차를 더 가볍게...완성차 수요 공략 효성첨단소재, 경량화 소재 집중 육성

### 타이어코드 점유율 세계 1위 전기차 전용 제품 개발도 추진

효성첨단소재가 자동차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완성차 기업들의 수요를 공략해 차량용 경량화 소재를 집중 육성해 나갔다.

최근 전기차 전환 추세에 따라 자동차업계에 서 차량용 경량화 소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자동차는 무게줄수록 연비 성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에 더해 전자 부품들이 대거 탑재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중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타이어코드 점유율 세계 1위 기업 효성첨단소재는 자동차 무게의 고민을 반영해 전기차 타이어 경량화 소재사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다.

타이어코드는 타이어 속에서 뼈대 역할을 하는 고강도 섬유 보강재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에서는 특히 타이어 경량화가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해 타이어 보강재 활용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효성첨단소재는 기존보다 더 얇고, 무게를 줄인 고강도 타이어코드를 개발해 타이어 회사들에 공급 중이며 전기차 전용 제품 개발도 추진 중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자동차 경량화 소재로 주목받는 탄소섬유도 자체 생산 중이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무게는 4분의 1 수준으로 가볍고 강도는 10배 높아 최근 자동차와 풍력, 항공우주, 스포츠레저 등 여러 분야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가 생산하는 탄소섬유는 수소전지차량용 연료탱크와 전기차 부품, 자동차 골격 구조 보강재 등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자동차 경량화에 기여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전북 전주 탄소섬유 공장의 생산능력을 연산 2만4천t까지 확대하고, 탄소섬유 분야 글로벌 3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효성첨단소재는 자동차용 경량화 카본 원단도 생산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마세라티, 전 세계 62대 한정 트랙 전용 스포츠카 생산 돌입

### V6 네튜노 엔진에 출력 740마력 MC20 계승...목표 중량 1250kg

이탈리안 하이퍼퍼포먼스 럭셔리카 마세라티가 트랙 전용 슈퍼 스포츠카 개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1일 마세라티에 따르면 마세라티는 브랜드의 성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트랙 전용 슈퍼 스포츠카 '프로젝트24'를 개발한다.(사진) 해당 차량은 전 세계 단 62대 한정으로 생산된다.

프로젝트24는 극한의 트랙 전용 차량으로, 마세라티 MC20을 계승하면서 더욱 발전된 기술 사양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신 V6 네튜노 엔진에 새로운 터보차저를 추가, 출력을 740마력으로 높였으며 혁신적인 서스

펜션과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 및 레이싱용으로 튜닝된 타이어와 FIA 승인 안전기능을 갖췄다.

아울러 차체 경량화에 대한 마세라티의 집념을 바탕으로 목표 중량은 1250kg 이하, 출력대비 중량은 약 1.69kg/hp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 센터로 스티레 마세라티에서 디자인한 프로젝트24는 경주용 차량이라는 디자인 제약에서 벗어나 아름다움과 스포티함의 결합을 보여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마세라티 관계자는 "마세라티의 고급스러움과 특별함의 상징이 될 프로젝트24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트랙별 체험과 최첨단 지원 등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금호타이어, 밴코리아와 '타이어 토탈 솔루션' 판매 양해각서

### 신제품 '마제스티X 솔루스' 납품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제공

금호타이어는 대형 밴(VAN) 차량 전문 업체 '밴코리아'와 스마트 타이어 및 관련 서비스 '타이어 토탈 솔루션' 상용화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MOU를 통해 기아 카니발 차량에 신제품 '마제스티X 솔루스' 납품 뿐 아니라, 타이어 모니터링 센싱(sensing) 기술과 LTE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해 타이어 상태를 파악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이 통합된 '타이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가 납품하는 '마제스티X 솔루스'는 타이어 내부에 폼(Foam)이 부착된 '공명을 저감



타이어'다. 또 금호타이어가 제공하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은 타이어 내부에 장착된 센서모듈과 차량 내 무선통신기를 통해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 온도, 상태 신호 등을 측정해 운전자에게 최적

의 타이어 위치 교환 및 교체 시기, 공기압 보충 알림과 실시간 상태 정보를 제공해 사전 사고 예방과 연비·타이어 교체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호타이어 판매 네트워크와 연계한 프리미엄 타이어 서비스 및 차량 경정비 등이 포함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타이어 토탈 솔루션'은 오는 9월부터 공급을 시작하게 되며, 향후 다양한 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상문 금호타이어 전략기획담당 상무는 "모빌리티 혁명 시대에 기존 주력 사업영역인 타이어 제조와 유통의 범위를 넘어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술 및 신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현대차 반려견 한혈 문화 조성 K리그 동반 입장 이벤트 현대자동차는 지난 3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 모터스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반려견 한혈 문화 조성을 위한 K리그 동반 입장 이벤트를 진행했다. 경기 전 선수들이 한혈견과 함께 입장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제공>

## 기아 신차 관리 프로그램 혜택 강화 재출시

### EV스타일케어 등 3종

기아는 1일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해 차량 외관 손상을 수리받는 차 관리 프로그램 3종에 대한 혜택을 한층 강화해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내연기관 전용 'K스타일케어+'와 전기차 전용 'EV스타일케어', 'EV세이프케어' 등 총 3종이다. 이번에 리뉴얼한 프로그램은 신차 구매 고객의 예상치 못한 차량 손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으로 신차를 살 때 적립 받는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K스타일케어+'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출고일 기준) 차량 외관 손상 수리를 보장받는 신차 케어 프로그램으로 이전 프로그램 대비 고객 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증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EV스타일케어' 프로그램은 EV6, 니로EV, 니로 플러스 해당으로 신차 출고 기준 1년의 보장 기간 동안 차체 상부 판금·도색 작업, 사이드 미러, 도어 또는 펜더 및 범퍼 파손 시 교체, 타이어 교체 등 4부위 1회씩 보상 수리 이용이 가능

하다. 'EV세이프케어'는 EV6, 니로EV, 니로 플러스, 봉고EV 차량이 대상이며, 전손 사고 발생 시(도난, 침수, 화재 등) 신차 가격(보조금 포함)과 자동차 보험 자차 전손보험금과의 차액 및 구매 지원금 100만원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밖에 각 프로그램의 보장 범위와 가입 시 포인트 차감 정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아멤버십 홈페이지(members.kia.com)를 참고하면 된다.

차량이 손상되면 전용 고객센터(☎ 1600-9440)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전국 800여개 오토류에서 보장 범위에 해당하는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아 차량을 출고하고 제작증을 발급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만 이날부터 기아멤버십 홈페이지 등에서 기아멤버십 포인트로 가입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아멤버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